

“그림 선물하는 문화 만들고 싶어요”



강운·문정호 작가 작품을 전문적으로 전시·판매하는 이화갤러리 내부 모습.

광주 예술의 거리 인근에 '이화갤러리' 연 이정화 대표

옛 충장동주민센터 건물 뒷길(중앙로 196번길)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쪽으로 걷다보면 새로 생긴 갤러리를 볼 수 있다. 이름은 '이화갤러리'(대표 이정화). 문을 연지 이제 갓 한달된 100㎡ 규모(30평) 신생 갤러리다.

즐거워하던 식당들 사이에 다소곳이 자리잡은 이곳을 처음 본 사람들은 '언제 여기에 갤러리가 생겼지?' 반응을 보인다.

앞만 보고 걸어가다간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지만 한번이라도 눈길을 줬다면 독특한 인테리어에 계속 시선을 뺏기게 된다. 전면 통유리 안으로 보이는 안쪽 모습은 내부가 흰색인 대부분 갤러리와는 달리 아무런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시멘트가 드러나있다. 건물 기초를 세울 때 쓴 목재도 고스란히 보여 지어진 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이 느껴진다. 시멘트 빛깔과 노란 조명은 서로 어우러지며 전체적으로 어두운 갈색빛이 도는 차분한 분위기를 만든다.

한쪽 면에는 '구름화' 강운 작가 작품 '꿈기와 꿈' 시리즈가, 다른 쪽에서는 제주도·완도 풍경 등을 그린 문정호 작가 작품이 걸려 있다. 두 작품은 어두운 벽면과 대비되며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이정화(여·48) 대표는 "다른 갤러리와 외관부터 차별화를 시키고 싶었다"며 "내부 마감재를 뜯어내고 시멘트를 반듯반듯하게 문지르는 작업만 한달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원래 광주 지역에서 화장품 업체를 운영했다. 늘 갤러리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는 예술의 거리 주변으로 장소를 물색하던 중 한달 전 이곳에 자

통유리·시멘트 맨살... 외관 차별화

강운·문정호씨 작품만 전시·판매

“싫증난 작품 언제든지 제 값 교환

화장품 영업 노하우 작품 판매 적용”

리잡았다. 원래 식당이었던 공간이다. 자신의 이름에서 두 글자를 따 '이화'로 이름 붙였다.

"처음엔 예술의거리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리가 나질 않더라고요. 주변 지역으로 알아보던 중 지금 위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찍 불이 꺼지는 예술의 거리와는 달리 주변에 식당이 많아 밤에도 거리가 환하고 특히 점심시간 등에 유동인구가 많은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갤러리 운영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목적은 작품 판매"라고 숨김없이 말하면서 "돈 보다는 좋은 작품 선보이는 게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영업을 하며 예술의 거리를 자주 다녔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화장품 보다는 그림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림 자체도 좋아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업 노하우를 작품 판매에도 적용해보고 싶었어요. 작가들이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게 판매 등 외적인 부분은 제가 전담하는 방식이죠. 좋은 작품이 나와야 판매도 잘 되니까요."

5월 중 큐레이터를 채용하고 정식 개관식도 갖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사람들이 명품가방은 수백만원씩 주고 사면서 그림



가와 작품에 차별성을 두는 생존 전략을 짰다. 광주에서 작품을 흔히 볼 수 없고 개성있는 표현을 보여주는 강운, 문정호 두 작가 작품만 전문으로 다룬다. 이 때문에 몇 차례 있었던 대관 제의도 다 뿌리쳤다.

"취지를 설명하니 작가분들이 흔쾌히 승낙하셨어요. 준비기간 딱 3개월만 기다려주시면 작품을 팔아드리겠다고 했죠. 작품을 설치할 때 눈에 실핏줄이 터지도록 신경쓰시는 모습을 보니 작가분들에 대한 신뢰가 생겼더라고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 강운, 문정호 작품을 사고싶은 사람들은 이화갤러리로 연락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운영시간 오전 10~오후 7시30분. 문의 010-3938-4483. /글·사진=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은 안사요. 또 사더라도 꼭 소파 뒤에 걸어놓잖아요. 그럴 바꾸고 싶어요. 그림을 선물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영수증도 발급할 생각이예요. 싫증난 작품은 같은 가격대로 언제든지 바꿔주는 거죠"

수많은 갤러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외관·운영방식 외에도 취급 작

도시텃밭 가꾸는 도시농부의 세계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에나방 5월호



5·18 36주년 '민중가요로 되돌아 본 그날'

광주일보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 매거진 '에나방' 5월호가 나왔다. 이번호에서는 '올 봄 도시텃밭 열풍이 분다'를 주제로 특집 공간을 마련했다. 녹색공간이 협소한 도시내에서 적은 규모의 텃밭 뿐만 아니라 배란다, 건물 옥상 등에서 채소를 가꾸며 작물을 키우는 도시농부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

올해 36년째를 맞은 5·18을 앞두고 기획 '민중가요로 되돌아 본 그날, 5·18'을 준비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 유독 남도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상처의 이미지로 남아 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민중가요 이야기와 크리스찬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고혜경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달의 예향 초대석에는 '운명'을 읽는 음악평론가 강현 선생을 모셨다. 음악평론가이자 명리학자인 강현은 "내 운명을 나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자"고 말한다. 12년전 생사를 오가는 삶의 경계에서 '명리학'(命理學)에 발을 디딘 후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그에게서 음악평론 인생과 명리의 세계에 대해 들었다.

기획 시리즈 '사람이 브랜드다'의 열일곱번째 주인공은 조각가 문신과 마산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 문신(1923~1995)은 생명의 본질을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언어로 추구했던 예술가다. 생전에 "노예처럼 작업하고 신처럼 창조한다"고 말했던 조각가 문신, 죽어서는 마산의 브랜드가 된 그의 자취를 찾았다.

지역의 맛과 멋, 흥을 찾아 떠나는 '남도 미미락'은 고희으로 떠난다. 청정 자연경관, 문화유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우주과학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고희의 5월은 거금도 적대봉 생태숲과 팔영산 편백나무 숲 등으로 '봄'을 찾아 떠나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신록의 계절, 남도의 끝자락 고희으로 길을 떠나 보자.

이외에도 광주FC 새 간판 스트라이커 정조국 선수와 5대째 참빛을 만들어 오고 있는 참빛장 고희우옹을 만나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전북의 문화예술 공간을 찾아서' 첫 번째 공간인 정읍 권번문화예술원 '예기인'을 찾아가 본다.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소빈 작가 개인전 8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벼랑 끝에 서다'

소빈 작가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꽃으로 와서 새가 되어간다'를 주제로 27일부터 5월8일까지 개최한다. 소 작가는 한지 작품을 통해 동심과 모정, 현대인의 다양한 삶을 이야기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도 꽃과 새, 나무를 통해 삶의 순환과 일상을 작품에 담았다. 작품 '꽃으로 와서 새가 되어간다'는 월형 틀 안에 서 있는 꽃을 든 소녀와 밖에 서 있는 새를 쫓는 소녀가 등장한다. 과감한 인체 비례와 붉은 의상, 허공을 바라보는

희망에 찬 표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본다. 그 밖에 벼랑 끝 소녀를 표현한 '벼랑 끝에 서다'는 히로에락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씨는 전남대 미술학과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원광대 조형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작품 '반추'로 2004 한국한지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봄은 온다' 등 한국과 중국에서 개인·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575-888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 400여점 전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

46형, 49형 20%할인 / 65형, 69형 30% 할인

- 최초분양가 7억9천만원 ~ 14억원 (할인분양가 6억4천 ~ 9억8천만원)
- 전세가격 약 5억5천만원 ~ 8억원(전세가 상승중)
- 대출 없이 2년 전세 놓으면 분양가 회복 가능

근린상가 NPL 매각

- 분양가 336억원(1771평), 채권최고액 330억원
- 전체 임대시 보증금 20억 월 1억5천만원 (현재 보증금 12억 차입 6300만원)
- NPL 할인매각가격 200억원

제척부지 NPL 매각

- 시세 및 채권최고액 270억원
- 하월곡 제1구역 시공사 선정(롯데, 한화컨소시엄)
- NPL 할인매각가격 120억원

에셋코리아 하월곡제일차 주식회사
상담 062)236-3400 · 010-2874-099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열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성한 정갈한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